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2월호

통권 제 18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1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이재혁(201구역, 청년), 은평구 역촌동 42-45 301호  
☎ 017-231-6407
- ♣ 전병권 유화명, 성북구 길음동 1279 래미안 길음1차  
111-1201 ☎ 6219-3515
- ♣ 최승배(202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현대아파트  
104-403, ☎ 011-9723-3849(김문수집사 인도)
- ♣ 김현정(103구역), 종로구 안국동 57번지,  
☎ 010-2260-0185(이경복집사인도)
- ♣ 조희정(107구역), 종로구 원서동 4-7 402호  
☎ 010-2826-4858(이생림집사 인도)

### 입원

- ♣ 정복순씨(이윤희 권사 모친) 신촌세브란스 신관1912호.
- ♣ 백정희교우, 상봉제일외과 205호.
- ♣ 이민호교우 송혜자권사, 백병원 1016호.
- ♣ 원중순권사(민혁근권사 이병근집사 모친), 백병원  
711호.

### 출산

- ♥ 김에녹-김소연교우, 4일 득녀.
- ♥ 정순웅집사 조명자권사, 2일 득손녀.
- ♥ 윤병우-박현영교우(윤명렬-김혜숙집사 아들),  
12월 21일 득녀.
- ♥ 이종철-박선영교우, 17일 득남

### 별세

- ♠ 고 전충겸씨(전혜정-신영식 집사 부친, 87세),  
26일 별세 28일 장례.
- ♠ 고 윤범구성도(박경혜권사 부군, 63세), 2일 별세 5일 장례.
- ♠ 고 유정자권사(89세), 12일(월) 별세 14일(수)장례.

### 감사

- ♣ 임중규장로-김경호권사, 4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문창아권사, 성찬식용 포도주 제공.
- ♣ 고 윤범구성도가족(박경혜권사 가족), 11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출국

- ♥ 권혜순권사, 미국방문 1월 16일-2월 17일.
- ♥ 박정음장로, 17일(토)-27일(화) 미국방문.

## 미얀마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윤명렬 안수집사

2008년 크리스마스는 남쪽나라에서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교회에서 지원하는 미얀마 양곤시 아웅산동의 문화센터 개관 축하를 겸하여 12월 22일(월)부터 29일(월)까지 황영태, 안재훈, 강명준, 백종관, 윤명렬, 황금석, 김성호, 백대하, 정인철, 이수정, 황수진, 박경진, 이주형, 이기쁨 모두 14명이 (장년7명 청년7명) 함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아웅산 문화센터는 우리교회에서 지난 3년 여 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써, 12월24일 문화센터 개관식에는 7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대접과 선물을 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층은 넓은 홀로 꾸미어져 있어 마을 주민들이 휴식도 하고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과 도서관, 재봉실, 관리실을 갖추어 마을회관 및 노인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2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되며 식당, 샤워실이 있습니다. 대지 450평에 건평 200평의 부분 2층 건물로 개관한 센터의 토지매입에 5천 만원이 들었고 완공까지 1억2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센터의 건립을 지켜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안동재단의 저력과 전교우들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복음전도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2007년 여름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34명의 교우들이 다녀온 단기선교에서도 선교활동이나 예배까지도 드러내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7박 8일 체류기간 동안 황영태 담임목사님을 사장님으로, 장로님들은 이사님 등으로 호칭을 하며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아운산동은 양곤시 서북쪽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인구수는 약 15,000명 정도 되는 지역으로 도시 빈민지역입니다. 12월 한 달은 이곳 미얀마에서도 캐물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12월25일 성탄절에 오영환전도사가 개척하여 현지 미얀마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가서 찬송과 예배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현지 교회에 선물도 전하였었습니다.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유난히도 십자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듯 하였습니다. 작년에 휩쓴 싸이클론은 가로수 전신주를 넘어뜨리며 선교센터의 담장도 무너지고 본관지붕도 날려 보냈지만, 안동교우들의 염려와 협력으로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센터를 새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노트북 14대를 지원하였고, 황금석, 백종관 등은 벽돌 쌓아 모타집 만들기 강명준, 박경진등은 개관식에 사용할 풍선만들기 윤명렬, 박경진 이수정 이기쁨 등은 개관축하노래봉사와 청년들 전부 개관축하공원에 김성호는 의료봉사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 빈곤 과 낙후된 빈곤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을 어린이들의 눈망울은 너무나 순수하고 예쁜 이 지역에는 선교책임자(코디네이터)

로 오영환 목사님 부부가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적막하고 메마른 땅에 싹트는 사막의 풀과 같은 모습으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오선교사님 부부는 3년 전에 고아를 입양하였습니다. '오세미'란 이름의 이 딸은 지금은 19살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웅산 문화센터 방문을 통하여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우리교회가 지원하여 개관한 아웅산 문화센터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우들께서 조그만 정성의 선교헌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청년들 중 단기 선교봉사활동(3개월내지 1년 미만) 지원자가 있을 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왕복교통비와 적은 비용의 생활비는 교회에서 부담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오영환선교사님의 딸 세미양에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간 저와 신영식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사막의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아남는 식물들은 땅 위 줄기는 불과 몇 센티에 불과하지만 땅 속 뿌리는 몇 미터까지 뻗어나가 그 생명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13년에 접어드는 오영환목사님의 선교활동과 우리교회에서 건립한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 교우여러분의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라왔던 세상을 위하여  
그들에게  
글로벌시대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매일 보는 분들 뿐만 아니라  
험벗고 굶주리는 지구촌사람들  
이런 분들이 행복해 하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우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이니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왔던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가 !

## 즐거움을 나누는 한길의 날

이 선옥 총무

지난 1월 20일은 제9회 한길여전도회의 날이었다. 새 희망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09년을 섬

길 신입 임원들이 각자 준비한 환상의 재료와 음식을 가지고 아침 일찍 주방에 모였다. 부서별로 끓이고, 볶고, 지지고, 무치고, 재미있는 수다양념을 넣어가면서 갈고 닭아온 주부 18단의 실력을 거침없이 보여주었다. 최고급 버섯불고기, 달콤한 닭강정, 푸짐한 고추잡채, 쫄깃새콤한 오징어미역회, 부드러운 단호박샐러드, 고소한 야채전, 웰빙 샌드위치와 야채샐러드, 궁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쫄득한 떡, 상큼한 곱절이와 향긋한 과일은 어느 호텔 뷔

페도 부럽지 않았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한빛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식탁이 되었다. 한빛 선배님들은 안동교회 신앙의 선배요, 봉사의 선배요, 기도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이기에 그분들의 과거 모습을 생각해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인생이라면 복된 인생이겠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안 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 “인생정리와 새로운 삶”이란 제목의 설교였는데 오늘 집을 나서면 어쩌면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중학교 때 사건을 토대로 말씀하셨다. 오늘 흠어진 삶을 어떻게 정리하며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여행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기대와 받아들임이 달라지듯이 인생의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2부 순서로는 웃놀이를 했다. 웃을 던지고 말을 옮길 때마다 어디에 숨었다가 나오는지 모를 몸쓸 불같은 승부욕에 눈동자는 웃가락을 향해 번뜩이고 던지는 손끝은 1등을 향해 날카로워졌다. 잡히고 먹히고 막판에 뒤집히고 할 때마다 전투 같은 함성과 아쉬움이 뒤엉키고 떠나갈 듯한 소리와 웃음이 우리들 일상의 삶속에 가라앉았던 걱정과 힘들었던 일들을 말끔히 날려 보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듯 실컷 소리쳐 웃을 수 있을까? 행운권 추첨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순서였는데,

선물을 가져가려면 필수 코스인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멋지게 디스크를 추어라.” “남편의 애창곡을 불러라.” “고전무용을 해라.” 등등. 어떤 난코스 미션에도 아이처럼, 때론 능청스럽게 때론 우아하게 서로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09년 한길의 표어는 강

희선 회원이 응모한 - 오직 한 길로 향하는 믿음 충만한 한길-이 채택되었다. 올해는 표어처럼 오직 한 길로 결눈질 없이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한 가족 같은 한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는 한길의 날, 창립 100주년을 맞은 안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 충만한 한길이 되리라 다짐해본다.

##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이종서

장로

이번 겨울 중고등부의 겨울수련회에 동참했습니다. 교사중 한분의 아주 특별한 노력으로 최고급 시설인 정선의 썬데일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리조트의 홀을 빌려서 메인 강당으로 사용하고 80평형대 방 5개를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실안에 화장실이 2개씩 달리고, 실 안에 다시 방이 3개씩으로 되어있어서, 무척 렉저리한 수련회였습니다. 학생 23명, 교사 17명이 참석하였으며, 3개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각 방에서 취침을 하여서 조별 친교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물론 교사들도 각방에서 함께 자면서 취침관리까지 함께 하였고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직장인이어서 금요일 퇴근 후 합류를 하였고, 청년교사들도 계절학기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별히 나이 50의 4명의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며 각 조 조장을 맡으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월 10일에는 하이원스키장에서 스키도 오후 내내 탔습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었지요. 유치부 교사중에 스키 강사가 한 명 있어서 특별히 참여해주고, 밥 늦게 다음날의 예배를 위하여 혼자서 먼저 귀경하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인원이 넘칠 것을 우려했었는데, 믿

음부족 때문인지 인원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별로 참여를 못함이 아쉬웠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2째날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는 기도회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캠프화이어가 아니라 기도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을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주님을 만나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찬양을 몸으로 드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생이 10여명이어서 급격한 인원감소는 있었지만, 이 적은 인원들을 주님의 용사로 키우는 사역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예배외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 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이 좋은 신앙교육의 장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기도제목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교회 예산 사용이니 모든 교인들이 해당됩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2009년 유치부, 새로운 시작!

김현진 청년

새해를 맞아 안동 유치부 어린이들도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만났다. 4세반은 염영순 선생님, 5세반은 이은주 선생님, 6세반은 최윤민 선생님, 7세반은 김옥주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스무 살이 되어 중고등부를 졸업하게 된 선생님들(김예슬, 노주희, 변경만, 신혜미, 정지혜)도 유치부 교사로 오게 되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더 편안히, 더 안전하게, 더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다.

한 살씩 더 먹은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시간에도 말씀 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에는 더 많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우리 안동 유치부와 함께 하길 소망해 본다. 지난 11일(셋째 주일)에는 “앞으로 너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나라 어린이 삼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각자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길 소망하며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예쁜 축복액자를 만들어 보았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크게 쓰임 받을 꿈과 소망을 품는 안동 유치부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해 본다.

## 하얀 데이트

###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다녀와서

박경진 청년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청년부가 강원도 평창 썬데일 펜션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안종혁, 안재훈 목사님과 백종관 청년부장님, 이종서 장로님을 비롯하여 나상용 집사님 내외분과, 이동호 집사님, 류금주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다. 첫 날 서울로부터 평창으로 이동하는 길에 도토리묵을 맛있게 먹고 오후가 되어서 목적이인 평창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이 후 안종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동안에는 ‘찬 듯 못다 찬’ 우리네의 삶의 모습들을 자성해보고, 이를 위해 말씀인 성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 실제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려 애씀으로써 자신의 삶이 가치 있음을 확인받고자하며 이렇게 ‘가치 있는 삶’ 이고자 하는 마음은 되려 바쁜 일상에 쫓기도록 내몰아 일과 의무로 스스로를 구속하게 함을 바로 알게 되었다. 지금 여기서 (Here & Now)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또 성서를 읽는 데 있어 학문적인 접근과 수도생활적 접근의 두 방법이 있음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읽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 후 맛있는 바비큐로 저녁을 먹고 늦은 밤, 안재훈 목사님과 함께 애니어그램을 통해 진솔하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았다.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아홉 개의 점이 있는 그림’ 을 뜻하는 말로 인간의 성격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고 유형 별 자아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성격유형 및 심

리검사의 하나다. 2500년의 역사를 갖은 애니어그램은 주로 인간이해와 영성수련에 사용되어왔다고 한다. 말이나 행동으로써는 여간해서 가늠하기 어려운 자신의 어두운 면들에 직면하여 무의식 속, 내면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3시까지 함께한 이 나눔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모여 진솔하게 각자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는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안동청년의 각 지체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애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은 샵샤브로 식사를 마친 뒤, 특별히 두 장로님과 함께 기독교청년으로써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들과 바람직한 자세, 나아가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누는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의 만족과 충일함을 느끼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로 괘시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크리스천 청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뭉클을 기억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향하기 전, 각자 말씀을 뽑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넉넉히 일러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게 들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며, 나는 그동안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무르기를 포기하고 그 얼마나 자주 내 속에서 흔들렸는가 되돌아보았다. 구하며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게을렀는지, 과연 얼마만큼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었는지 다시금 잠잠히 되돌아 듣는 시간이었다. 내리던 눈처럼 하얗게 아름다웠던 1박 2일, 주님과 함께한 겨울날의 데이트는 이랬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섬김, 3백만 성도운동에 올인"

새해를 맞아 본교단 총회가 지난 5일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09년 신년하례 및 시무예배를 갖고 총회 주제인 섬김의 사역과 총회의 중요 정책사업인 예장 3백만 성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증경총회장을 비롯해 총회 임원과 총회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임원, 특별위원회 임원, 총회 산하 기관장 및 산하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하례 및 시무예배는 3백만 성도운동의 성취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눴다. 총회 서기 이성희목사(연동교회 시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신년하례에서 총회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는 '새로운 전진' 제하의 설교를 통해 제93회 총회 주제를 '섬겨야 합니다'로 정한 배경과 총회가 열정을 가지고 2년간 추진해나갈 3백만 성도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춰있다"면서 "우리 교단이 3백만 고지를 넘어설 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참석자들은 총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위해 여전회전국연합회장 홍기숙장로(믿음교회 시무)과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표명민장로(동막교회 시무)가 '예장 3백만 성도운동의 성취와 한국교회 부흥', '나라와 세계평화'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 및 시무예배에는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전병일총회장이 참석해 "개인적으로 예장 통합을 존경해 왔고 통합측 인사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훌륭한 어른들이 계신 교단에 와서 기성 교단을 대표해 신년하례 인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축사했다. 이어 부총회장 지용수목사(양곡교회 시무)는 예장 3백만 성도운동의 성취를 위한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은 총회를 움직여 3백만 성도운동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새해에 3백만 성도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며 3백만 성도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 및 시무예배는 총회 고시위원장 이창재목사(효성교회 시무)의 21세기 신앙고백서 낭독과 익산노회장 장덕순목사(이리신광교회

시무)의 대표기도, 총회 회계 박덕근장로(남부교회 시무)의 성경봉독, 한국여전도회성가단의 찬양, 설교, 합심기도, 축사, 격려사, 총회 회록서기 김재영목사(성안교회 시무)의 총회장 신년사 낭독, 코이노니아 및 감사패 증정, 증경총회장 이종성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 "교회여, 비전 향해 비상하라"

새해 아침, 한국교회는 지구촌에 몰아닥친 대규모 재해와 경제 위기 등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의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것을 염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일제히 전했다. 2009년 새해 첫번째 주일인 지난 4일 총회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는 '유다지파여 일어나라'(삿 1:1~2) 제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이스라엘의 열 두지파 가운데 수많은 신앙 위인을 배출하고 메시아의 가계를 잇게된 유다지파에 비유하며 "위기의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일어나자"고 강조한 뒤 총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3백만 성도운동과 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1만 명 전도 달성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자"고 교인들을 격려했다.

증경총회장 박종순목사(충신교회)는 '새 사람을 입으라'를 주제로 설교하고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새해 새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증경총회장 이광선목사(신일교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창 41:46~57) 제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속에 살았던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삶을 소개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꿈을 애굽 땅에서 이룩하고 두 아들을 낳아 '므낫세'(잇게 하심)와 '에브라임'(번성케 하심)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지난 날의 어려움을 묵은 해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잇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로 새해를 살아가자"고 권명했다.

하용조목사(온누리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제로 설교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믿음의 사람'을 강조했다. 하 목사는 설교에 앞서 "어렵고 힘든 2008년을 뚫고 독수리처럼 비전을 향해 비상하고, 날개 부러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총회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는 5일 열린 본교단 총회 하례 및 시무예배에서도 섬김을 강조해 한국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새로운 전진'을 주제로 설교한 김 총회장은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는 저항을 극복하고 3백만 성도를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주자"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섬김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김 총회장 설교의 골자다.

예장합동 총회장 최병남목사도 5일 가진 교단 하례예배에서 '새해, 새 방향'을 주제로 설교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에 낙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 총회장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설교하고 "하나님이 절망의 날이 변해 희망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변해 축복의 날이 되고, 슬픔의 날이 변해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주문했다.

## 3백만운동, 총회 전도학교가 앞장

총회 3백만성도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총회 전도학교(교장:조천기)가 전국 12개 권역 및 64개 노회별 3백만성도 운동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내선교부(부장:김수읍 총무:진방주)는 "12개 권역별 3백만운동본부와 64개 노회별 운동본부가 각각 전도학교를 개최해 줄 것을 청원

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도학교 교무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3백만 성도운동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국 교회의 전도역량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3백만 성도운동의 성공은 결국 '30만 전도운동'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교장 조천기목사는 "3백만 성도 운동이 구체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총회 전도학교를 통하여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훈련 지도자로 거듭나고,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학교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온 성도가 함께 전도요원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회 전도학교는 12개 권역 3백만성도 운동본부와 각 노회 본부가 각각 전도학교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했다. 총회 전도학교는 지금까지 69기가 수료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목회자 4천5백 명은 각 소속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진행해 4만5천여 명의 평신도전도요원을 양성해왔다.

## "어르신들 기도, 한국교회 큰 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본교단 은퇴목회자들의 안식처인 공주원로원(원장:김영운)에 총회 임원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지난해부터 매달 섬김의 현장을 찾아 총회 임원회는 새해 첫 모임을 지난 8일 공주원로원에서 갖고, 평생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원들은 공주원로원 원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후 직접 배식에 동참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사장:박래창) 관계자로부터 공주원로원의 현황과 어려움 등을 보고 받았다.

오찬 후 서기 이성희목사(연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임원들이 동반한 부인들과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며 지금도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고 있는 교단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회장 김삼환목사는 "설날을 앞두고 제일 먼저 교단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싶었다"며,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보며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어

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부족한 총회와 임원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가 예수님처럼 낮은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섬김'과 '예장 300만 성도운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요청했다. 부총회장 지용수목사도 이날 기도를 통해 공주원로원이 본교단 은퇴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한 낙원이 되기를 염원하며 부채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

이날 공주원로원의 은퇴목회자와 가족들은 풍성한 식탁과 총회 임원들의 격려에 큰 박수로 화답했으며, 총회 임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이어 공주원로원의 널싱홈 병실들을 찾아 병상에 누워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 박래창장로(소망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비전과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총회 임원회가 새해의 첫출발을 은퇴목회자들과 함께 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 "독도 수호, 교회가 앞장서자"

지난해 제93회 총회에서 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은 (가칭)독도수호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첫 모임을 갖고 위원회의 명칭을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로 확정하는 한편, 위원장에 김태영목사(백양로교회), 서기 김의환목사(포항연일교회), 회계 이시걸장로(빛과소금교회)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했다. 이날 첫 모임의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 위원들은 한국교회가 독도 문제에 대해 이성적, 신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총회 및 노회들과 협력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국 교회로 확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독도 관련 자료 수집 △정부 기관 및 사회 단체들과의 연계 △해당 노회 및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총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을 비롯해 세계 국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과의 연결을 통해 교단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기독교 교단 내에서 전례

를 찾아보기 힘든 위원회인 만큼 타교단들과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생명살리기 본격 시동

올해부터 총회 생명살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총회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위원장:지용수)는 16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93회기 첫 모임을 개최하고 생명살리기 운동 후반기 사업을 이론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지침을 개발하는데 전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일환으로 오는 3~5월에는 7개 직영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생명살리기운동 10년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해 신학생들에게 생명살리기 운동의 취지를 바로 알릴 계획이다. 이미 92회기 가을, 봄 학기를 통해 호남신대와 영남신대에서 지역노회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거둔바 있으며 올해는 장신대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부총회장 지용수목사(양곡교회)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기에는 황세형목사(전주시온성교회), 회계에는 류지원장로(대봉교회)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임했다. 지 목사는 "이론에서 벗어나 '총회·노회·교회'가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총회 '3백만 운동'에 발맞추어 전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위원으로는 사무총장 조성기목사, 노영상교수(장신대), 고용수목사(대구제일교회), 이상훈교수(수원대 생명공학과), 양재섭교수(대구대 유전공학과), 양재성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등 6인을 선출했다.

환경 신학 등 각 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93회 총회에서 결의된 △회개·일치 갱신 △민족 복음화·사회선교 △나눔·평화선교 △생명경제·피조물 구원 △생명교육 △평화 및 생명공동체 지향 언론 △건강한 생명교회 만들기 △생명마을·도시 만들기 △생명목회 생명선교 세계화 등 '2차 제안서'의 9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생명살리기운동의 전반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남북문제 활로찾기, NGO에 달렸다."

지난 15일 함춘회관에서 열린 남북평화재단(이사장:박형규) 정책협의회에서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교수(성공회대)는 남북문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고 NGO들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여러가지 이슈 및 과제들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비핵 경제개방을 내걸고 핵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또한 발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북에 대한 공격적 정책들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틀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지난 10년과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도 긍정적인 대화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며 "발전된 역사의 여러가지 힘들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전하고 평화재단을 비롯한 NGO들이 "2009년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25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가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조건없이, 지속적이며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외교'로 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미관계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북미간 직접 대화가 이뤄지거나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한편 최근 김정일이 3남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교수는 "아직은 북한의 후계구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백주년, 김정일 탄생 7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후계구도 문제도 그때쯤에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유럽서 무신론 캠페인 확산

일단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내를 달리는 8백개의 버스와 런던 지하철에 부착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부터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라는 문구를 담고 있는 이 포스터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1인당 5파운드' 모금운동으로 조성한 14만 파운드(약 2억8천만원)의 기금을 통해 제작됐다. 현재 영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의 광고로 인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찬 보이즈'는 광고공사측에 이 광고가 실체가 없고 진실이 결여돼 있다고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번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 '영국 인본주의 협회'는 이 광고가 심각하게 불만을 살만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신론에 대한 논쟁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신론자들의 캠페인은 영국을 넘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인근 유럽국가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한 단체는 1월 초부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대도시 버스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나쁜 소식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는 문구의 광고가 등장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복존우물가

2009년 2월호 · 통권 제188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발행일 : 2009년 2월 8일